



車宗熙

〈韓國에너지研究所長〉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부터 획기적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60년대에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 中心의 산업 발전을, '70년대에는 資本集約的인 重化學工業을 中核으로 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잘살 수 있는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발전은 중단할 수 없으며, 보다 나은 국력의 신장과 社會福祉向上을 위하여 중진에서 선진으로 향한 우리의 경제는 제2도약의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경제는 後發開途國들의 추격과 선진국들의 심한 무역규제, 기술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험난한 國際經濟競爭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기술혁신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은 산업의 國際競爭力, 기업의 對外競爭力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며 기술집약적 제품인 첨단 기술제품, 高品質製品은 무역규제에서 관대한 것이다. 기술은 제품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하게 할뿐만 아니라 附加價値의 고도화 소득의 향상을 가져 오는데 필수적이다. '80년대는 실로 기술혁신에 의한 技術集約産業時代이며, 우리의 소망과 과제는 技術強國의 대열에 끼어드는 것이다.

기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류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발달되어 왔다. 그래서 한 나라의 번영은 산업의 발전에 있을 수 없으며, 풍요한 산업의 발전은 기술 없이 이를 수 없다. 오늘의 先進工業國들은 바로 技術強國들이며 그들이 발전시킨 기술력에

技術強國을

의하여 나라의 기틀을 잡고, 편리하고 풍부한衣食住와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 國家들의 대부분은 물질적 자원보다는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각기 그들의 고유의 국민성, 사회구조, 환경에 따라 기술력을 키워왔다.

그중 技術王國이라 말할 수 있는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적 혁신기술 500가지중 컴퓨터 등 60% 이상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등 상당한 外國技術을 공업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같은 미국의 기술력은 왕성한 기업력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研究開發投資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산업혁명이라 기술을 선도해 온 영국은 쟈트엔진, 페니실린 등 유력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영국의 기술력은 사물의 핵심, 본성을 究明하는데 지체없이 도전하는 국민성에 있다고 한다.

技術強國으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독일은 학문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사물을 깊이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논리를 세워 하나의 학문체계를 완성하는데 온 정열을 다한다. 그래서 독일의 기술은 두뇌와 손발이 균형이 잡힌 특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기술력은 강한 政治理念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혁신기술은 지도력에 의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결부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선진공업국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낸 일본은 새로운 발명보다는 既存技術의 응용, 조합, 시스템화에 의한 신기술, 신상품의 개발로 세계를 제압하고 있다.

이룩하는 길

과학기술강국으로 가는길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과학기술인력개발은 물론 기술드라이브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데 있다.

이와같은 先進技術強國들의 배경, 특색과 비교할 때 우리도 기술강국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물리적 자원은 빈곤하나 좋은 기후조건아래 풍부한 인력자원 즉, 技術資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면하고 총명한 인력자원에 기술을 심어 줌으로써 강력한 기술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技術強國으로 가는 길에 희망과 자신을 주고 있는 것은 領導者의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기술개발의 성패가 곧 나라의 운명에 직결된다』는 全大統領의 統治理念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혁신을 國政指標로 하여 범국민적인 의지를 한 곳에 모으고 產學研協同으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의 하나로 全大統領은 '82년 1월부터 여러차례 技術振興擴大會議를 직접 主宰하여 정부의 技術開發政策의 제시, 성공사례의 발표, 有功者敍勳등으로 기술입국으로의 길을 밝게 해 주었다.

우리에게 技術強國으로 가는 길에 청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산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의 눈을 떠, 기술개발, 첨단기술개발의 발동을 걸고 있는 사실이다. 요즘 企業研究所의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從事研究員과 研究投資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것은 기업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임을 통감한것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정부의 技術主導政策과 지원에 힘입은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技術強國으로 가는 우리의 앞길은 평

탄치만은 못한것 같다. 우리의 사회에는 아직도 기술계보다는 인문계를 選好하는 의식구조가 잠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李朝 5백년의 긴 세월동안 文人爲主의 관료조직이 나라를 지배해 온 역사적 배경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한 예로서 大入學力考査에서 高得點者의 분포를 볼때 아직도 인문계가 자연계를 능가하고 있음은 그 단적표현이 아닐까. 國民中의 우수한 인재들로서 기술력을 형성하고 科學技術者가 우대받는 사회가 이루어 질때 技術強國으로 가는 길은 가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科學技術者는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또한 훌륭한 數理的能力, 언제나 문제의식을 가진 창의력, 그리고 우수한 통찰력과 기억력을 필요로 한다. 科學技術者의 관심사는 자기능력을 기초로 하여 탐구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창조를 성취시키는 일이다. 한편 科學技術者는 항상 생산성있는 성과를 어떤 형태로든지 요구받는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다. 科學技術者는 각기 전문화된 분야에서 그 능력배양에 항시 정진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와같이 어려운 직업을 가진,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한 技術強國을 구축하는데 필수요원인 科學技術者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할것이다.